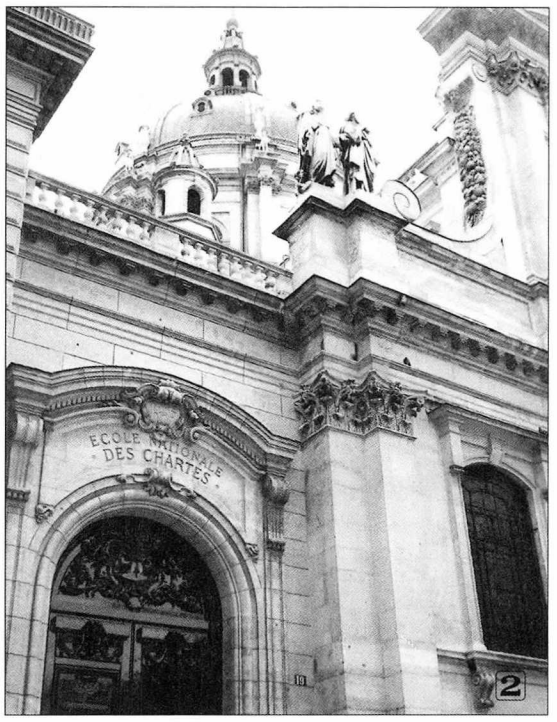
인류의 산 역사를 담은 전통 깊은 공간

소르본 광장의 명문서점 '퓌프(PUF)'

최연구
《한겨레21》 파리 통신원



낭만의 대명사인 소르본 광장의 한 귀퉁이에 전통 깊은 서점 '퓌프'가 있다. 퓌프출판사의 직영서점이기도 한데, 여기서 출간한 유명한 문고판 시리즈 '크세즈'가 지하매장 전체를 꽉 채우고 있다. 문명의 산 역사를 담은 '크세즈' 문고 안내를 맡은 전문인이 있을 정도다.

1 광장 곳곳에 비둘기떼와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져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소르본 광장의 귀퉁이에 있는 '퓌프' 서점. 2 전통 깊은 소르본 대학. 3 지하매장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퓌프출판사의 대표적인 시리즈 '크세즈' 문고

1257년 중세기에 세워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 대학(파리4대학)은 그 전통과 주위의 낭만적 분위기로 유명하다. 소피 마르소가 주연했던 영화 〈유 콜 잇 러브〉(You call it love, 원제는 여대생 Etudiant)의 배경으로 나오는 소르본 대학 강당이나 바닥이 돌인 안뜰의 아름다움은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의 하나이다. 소르본 대학 정문 앞에 있는 소르본 광장도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소르본 광장에는 오래된 나무들 몇 점이 늘어서 있고, 한 쪽에는 실증철학자이며 사회학의 창시자인 오귀스트 콩트의 동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 반대편으로는 유명한 대학가의 카페들이 모여 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 폭발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쥐스틴 레비의 처녀소설 《랑데부(약속)》의 배경이 되었던 카페 '에크리투아르'(문갑, 책상이라는 뜻)도 바로 이 광장에 있다. 광장 곳곳에 무리지어 있는 비둘기떼들, 광장과 대학 근처를 기웃거리며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 관광객들,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져 오늘날 낭만의 대명사인 소르본 광장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축제 같은 분위기와 어우러진 서점

죽 늘어서 있는 카페의 끝쪽, 그러니까 광장의 귀퉁이에는 전통 있는 서점 퓌프(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가 있다. 필자가 퓌프 서점을 찾은 날에는 운좋게도 마침 서점 앞의 소르본 광장에서 한 차례 구경거리가 펼쳐지고 있었다. 음대생으로 보이는 현악기 악단이 거리연주회를 가지고 있었다. 서점과 카페, 클래식 거리연주회라 뭔가 운치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점에 들어섰다.

프랑스의 명문 출판사들은 직판매장의 성격을 띠는 직영 서점들을 한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출판재벌 아셰트나 공쿠르 문학상 수상작을 단골로 내는 갈리마르 출판사, 전통의 플라마리옹 출판사가 그러하다. 퓌프 또한 이런 명문의 반열에 오르는 출판사로, 퓌프가 직영하는 서점이 소르본 광장의 퓌프서점이다.

퓌프에서 나온 서적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퓌프에서 출간된 책만으로도 대형서점을 하나 차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출판사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퓌프에서는 대학교재나 인문사회과학 교양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지만, 굳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프랑스에서 퓌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퓌프가 이토록 대중적인 것은 퓌프에서 나온 유명한 문고판 시리즈 '크세즈'(Que sais-je?,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뜻) 때문이다. '크세즈' 시리즈는 프랑스 출판역사에 길이 빛난 기념비적인 시리즈로 평가된다. 이 시리즈는 120쪽 정도의 얇은 포켓판 대중서 시리즈인데, 백과사전을 용어주제별로 분류해 단행본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41년 폴 앙굴방이라는 사람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주머니판형의 백과사전'이라는 모토를 걸고 출간을 시작한 지 어언 반세기, 이제 '크세즈' 시리즈는 만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퓌프'의 대표적 시리즈 '크세즈' 문고

장 테오도리데스의 《생물학의 역사》를 첫 권으로 시작한 '크세즈' 시리즈는 지금까지 통권 3300권을 넘었고 여기에 동원된 각 분야의 전문가만도 3천명에 달한다. 주제별로 보면 철학·과학·의학·음악·문학·사회학·국제정치·역사 각 나라별 단행본 연구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해 3300권을 모아 놓으면 한 방을 가득 채우는 인류 최고최대의 백과사전이 된다. 대충 몇가지 제목만 살펴봐도 제11권이 암, 70권 X선, 123권 프랑스 낭만주의, 304권 프랑스에서 정치적 독트린의 역사, 858권 유럽의회, 1191권 미국에서의 흑인, 1601권 팝음악, 1820권 한국, 2332권 에이즈(불어로는 SIDA), 2570권 냉전후의 세계, 3073권 인터넷 등 상식에서부터 전문지식, 인문사회과학,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취급되지 않은 주제가 없다.

최근에는 이 책의 차례별·주제별 색인을 모아 단행본으로 내기까지 했다(이 단행본 목록은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나누어준다). '크세즈' 시리즈는 매년 180종씩의 신

간이 나오고 있고, 300종의 재판을 찍는다. 지금까지 총 1억6천만권 이상이 팔렸으며 전세계 4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니 출판문화사에 길이 남을 대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퓌프가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출판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문지식을 대중화하고자 했던 바로 '크세즈' 시리즈의 성공에 있다.

좁은 공간이 오히려 각박하지 않아

'크세즈'와 퓌프는 한 묶음이다. 퓌프하면 '크세즈'를 내는 출판사로 통한다. 소르본 광장의 퓌프 직영서점의 지하매장은 매장 전체를 크세즈 시리즈에 할애하고 있다. '크세즈' 시리즈 안내를 전문으로 맡은 사람이 한켠에서 안내해준다. 1층은 문학, 2층은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 있고, 구석구석의 공간을 활용하여 잡지나 정기간행물 판매대를 설치해 놓았다.

옛날 건물이라 복도도 좁고 승강기도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책판매대 사이사이의 통로도 비좁기 그지없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지만, 지나면서 서로 옷깃을 스쳐야 하는 좁은 공간이 오히려 각박하지 않아 좋다. 서재도 이중으로 밀고 닫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이중서재를 열다보면 괴도 루팡이나 홈즈의 소설 한 장면 같은 비밀통로가 나올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든다.

대학가의 서점답게 학생에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5퍼센트의 할인혜택을 주는데 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그나마 제법 도움이 된다. 계산대에서 그냥 학생증만 제시하면 할인해준다. 지하와 1, 2층만 서점이고 3층부터는 아파트인 것도 재미있다.

혹시 파리여행 중 소르본 광장에 오면 소르본 대학을 먼저 들르고 광장의 카페에서 프랑스인들이 즐겨마시는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원래는 이태리 커피)를 한잔 마신 뒤 전통의 명문서점 퓌프를 한번 들러보라. 특히 문명의 산 역사와 결산을 담고 있는 '크세즈' 시리즈를 돌아보며 인류공동의 문명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한번 만끽해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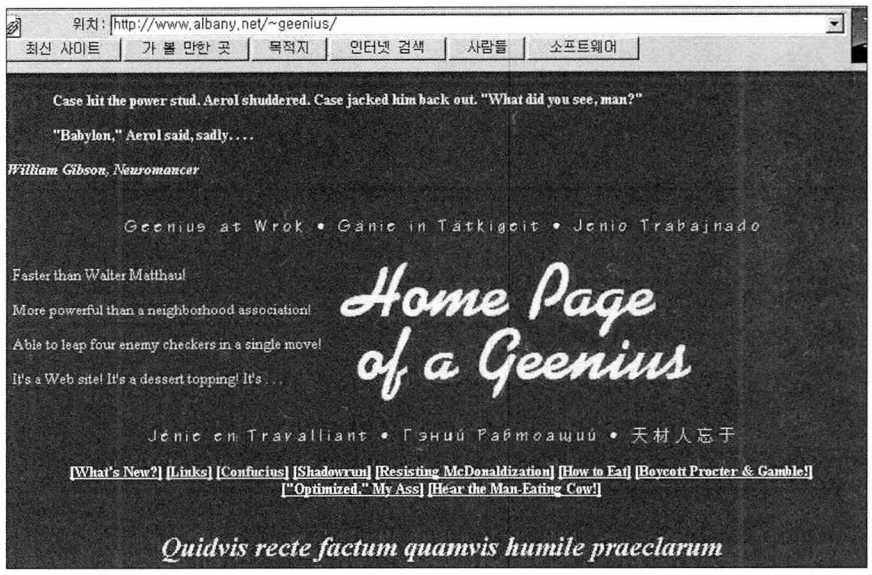
인터넷 출판항해

가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숨은 보물들

'엠네스티' · '유네스코' · '알바니' 사이트 등 무궁무진

최성균 · 민음사 기획위원

인권과 여성문제에 관한 〈엠네스티〉,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유니세프〉, 사라져가는 세계문화를 찾아보는 〈유네스코〉, 세계적인 석학들을 소개한 〈알바니〉 등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미답의 사이트는 편집자들에게 숨은 보물이다.



현대 지성을 이끄는 대표적인 석학들을 소개하고 있는 〈알바니〉 사이트 안의 〈지니어스〉.

사는 일이 직업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놀이와 만남의 자리에서조차 직업과 일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십상이다. 지금이 불황이라고 모두들 한 목소리로 얘기하곤 한다. 출판계 또한 예외 없이 불황이라고들 한다. 이럴 때 아이디어가 유일한 자본인 사람들에게 인터넷 탐험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찾아헤매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편집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원고의 교정·교열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바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서점에 나가 경쟁업체의 아이디어 상품(?)을 본다든가, 신문·잡지의 출판관계기사를 읽는 경우가 쉽지 않다.

무릇 아이디어는 진지하면서 동시에 게으른 자에게만 많이 나오는 법이다. 두뇌는 생물학적인 속성을 좇아 단순하고 편리함을 추구한다. 인터넷은 이런 면에서 출판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면서 동시에 정리 안된 쓰레기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250만 종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권이 아니라 종이다!) 인터넷 최대의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이나 분류 자체가 하나의 업적이며 방대한 정보분류소인 미국국회도서관(http://lcweb.loc.gov)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황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좀더 편하게' 정보를 찾는 일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빠르고 간편하게'는 젊은이들의 점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직업인의 생존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지식시장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던 구호가 이제는 가장 상위에 놓이게 되며 모든 이에게 진지한 모토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시대의 추세를 거스르며 일하는 어리석은 편집자들이 있다. 가진 것은 지식에 대한 열정과 계몽에 대한 의지밖에는 없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두뇌로 기획하고 몸과 손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미 신세대를 넘어버린 편집자들 말이다.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는 이미 정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빠르고 즉자적인 것에 능숙해진 신세대 편집자들에게는 아마존과 미국국회도서관 등이 유용할 수 있지만, '쉰세대' 편집자들에게 그것은 편리한 도서관 이상은 아니다. 외국의 책을 한글 책으로 옮기는 것은 편리하고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상품에서 포장과 형식을 변경시키는 과정(사실 얼마나 어려운가?)은 쉽기는 하지만 그 결과물은 모험인 경우가 많다. 100%에서 100%로(책에서 책으로) 옮기는 진지함에서 약간 벗어난 게으른 쉰세대 편집자들이 80%를 100%로 재창조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우선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미답 사이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과 자료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간한 팜플렛을 올려놓은 사이트 등이 그것이다.

인권과 여성문제에 관한 엠네스티(http://www.amnesty.org),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유니세프(http://www.unicef.org), 사라져가는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유네스코(http://www.unesco.org) 등 아직 책으로 완성되지 않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비치된 사이트가 무궁무진하다.

품을 더 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티칸의 자료실과 같은 각종 종교관련 사이트도 가볼 만하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라틴의 성화와 북구의 이콘(일종의 성화) 등은 디자인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키노쿠니야 서점(http://bookweb.kinokuniya.co.jp)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아마존 서점에 없는 일본어 책을 찾아볼 수 있어서 편하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편집자들에게 유용한 사이트인 알바니(http://www.albany.net/geenius)를 소개한다. 이곳은 현대학계를 이끌고 있는 석학들에 관한 소개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푸코와 들뢰즈, 캉길렘, 에드워드 홀 등 400여명의 학자들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았으며, 그들의 저작이나 그들에 대한 연구서가 많다. 나는 그곳에서 서양에서 본 공자를 만났다. ❖